

엄밀한 의미의 앤솔로지가 필요하다

다양한 작품감상 장점...저작권 등 문제대두

개인시집이 한 시인의 시세계를 집중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일차적인 텍스트의 의미를 갖는다면, 앤솔로지는 특정 주제 아래 여러 시인들의 작품들을 한데 모은 시선집으로 시집 한 권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이 앤솔로지가 개인시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예의 앤솔로지의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의 폭넓은 입문로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앤솔로지의 장점은 실제 기획·편집과정에 있어서는 수록내용과 저작권 등과 관련된 갖가지 잡음과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주제의 앤솔로지 부쩍 늘어

현재 서점의 시집코너를 장식하고 있는 앤솔로지들이 표방하고 있는 주제들은 다양하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들이 사랑, 이별, 고독, 그리움, 기다림, 우정, 믿음, 고향 등의 이른바 '감정호소형' 주제들로 민감한 청소년층과 여성독자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한국형 앤솔로지'의 효시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앤솔로지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재단장' 되면서 시집출판을 하는 출판사의 도서목록에 적어도 한두권 정도는 낄 정도로 시장성 높은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랑의 명시」 「그리움의 시모음」 「사랑을 위한 낭송시집」 「이별은 별이 되어 우능갑더라」와 같은 제목으로 비교적 낮은 시인들의 서정시들을 모아놓은 이 앤솔로지들은 때로 그림이나 사

개인시집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예상 밖으로 적잖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앤솔로지는 그러나, 앤솔로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집'이 아닌 '모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책임 있는 작품선별을

거치지 않거나 시인들의 작품을

무단계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진, 낭송테이프까지 곁들여 있어 선물용으로 애용되기도.

이와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주제별 앤솔로지들도 몇몇 출판사의 의욕적인 기획으로 나름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농민시선집」 「노동시선집」 「저항시선집」 「옥중시선집」 「교육시선집」(이상 실천문학사)을 비롯해 「모더니즘 시선집」 「민족시인 시선집」 「민중시인 시선집」(이상 청담문학사) 등이 시리 즈물로 나와 있고 이밖에도 「여성해방시」 모음인 「하나보다 더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또 하나의문학), 「5월광주항쟁시선집」인 「누가 그대 큰 이름을 지우랴」, 「반외세·민족자주화 시선집」 「아메리카 똥파다」(이상 인동)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 앤솔로지는 대부분 편자의 정치적 혹은 문학적 이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각종 문학상 수상시집들도 앤솔로지의 형태를 띠고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수상시와 후보작들을 함께 수록해 기념시집 겸 일종의 해당문학상의 홍보역할을 해내고 있다. '소월시 문학상'(문학사상사) '연암문학상'(문학과학비평사) '김종삼문학상'(청하) '운동주 문학상'(동광) 등의 수상시집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신춘문에 당선시집은 독자층뿐만 아니라 출판사측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출판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며 여러종의 '신춘문에 당선시인 신작시집'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상의 앤솔로지들이 일반 시집독자들을 염두에 둔 주제별 앤솔로지라고 한다면 '신작시집' 혹은 '동인지'의 성격은 앤솔로지들은 보다 문학성에 치중한 문단내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말, 90년대 벽두에 선보였던 「80년대 젊은 시인들」(시민문학사) 「마침내 길을 찾을 때까지」(「90년생시」(문학세계사) 「사랑 찾으러 새날이 온다」(태성) 등과 창작과학비평사에서 지난 81년부터 꾸준히 기획·출판하고 있는 당해년도 신작시집 시리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앤솔로지는 본격적인 시동인지의 성격을 띠기 직전의 단계로 자신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을 염두에 둔 전초작업의 의미를 지닌 경우가 있는 한편 일정기간의 시적 성과를 수렴·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띠기도 한다.

무단계재 등 저작권문제도 심각

개인시집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예상밖으로 적잖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앤솔로지는 그러나, 앤솔로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집'이 아닌 '모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류의 앤솔로지는 대부분 책임있는 편자의 꼼꼼한 작품선별 작업과 저작권 관계사항 등의 합당한 출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명의 편자나 출판사 '편집실 유음'의 형태로 시인들의 작품을 '무단계재'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앤솔로지와 관련된 저작권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선집'의 경우에도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로 저자와 출판사간의 법정시비로까지 비화되며 크고 작은 잡음을 불러일으켜왔다. 더구나 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앞으로 저작권문제는 특히 출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작년에 출간된 모출판사의 「사랑으로 빛나는 시어 모음집」의 경우, 저자들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홍)가 출판사와 편자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구속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29명의 여성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이 앤솔로지는 원고료나 인쇄지불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판회 협회에 '적발'된 경우로, 결국 출판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하고 고소취하됨으로써 일단락됐다. 협회측은 현재 개인가입회원만도 640여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시의 경우가 무단계재출판이 심한 편이라고 한다. 앞으로 그동안 관례처럼 여겨지던 출판계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인 협회는

脱 手 作 業 선 언!!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뵙겠습니다.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민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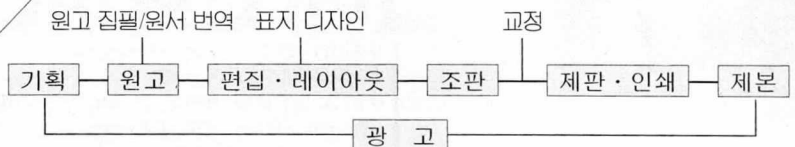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

Total Publishing





출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문제를 여론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앤솔로지 출판과 관련된 그동안의 관례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출판사나 편자가 수록시인들과의 '안면'으로 양해를 구해 원고료 지불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시원고료가 낮기 때문에 한두편의 작품을 수록하게 되는 앤솔로지의 경우 한사람에 지불되는 원고료는 '낮간지러운' 수준인데다가, 대부분 재수록 작품인 경우가 많아 원고료는 더욱 낮아져 시인들쪽에서도 원고료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원고료 없이 제작비만 들여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동안 출판사측에서 선호하는

출판형태로 자리잡아왔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인데 신작시는 편당 3만원, 재수록시는 1만~1만5천원 선으로 알려진다. 또는 해당책으로(5~10권정도) 원고료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가 바로 문제가 되는 무단개재의 경우로, 유명시인들의 작품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이 출간된 후 '사후양해'의 형식으로 시인들에게 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앤솔로지 출판을 둘러싼 여러 형태의 관행들은 그동안 작가들에게도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져왔으나 저작권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차츰 원고료지불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사실 재

수록의 경우가 대부분인 앤솔로지는 원고료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일반 단행본의 초판 인세와 비슷한 수준이고 새로운 판을 찍을 때마다 인세를 계산·지불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판매관리에 있어서도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모음'서 엄밀한 '선집' 개발 필요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출판사, 특히 영세한 출판사들은 원고료 없이 제작비만 갖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어느정도 대중성을 확보한 시인들의 작품을 짜깁기하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는 시장성에 있어 안정선에 든다는 점때문에 앤솔로지 출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저작권 시비 등으로 앤솔로지 출판이 다소 주춤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신 '얼굴없는' 시인들의 앤솔로지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법에 대한 출판사측의 나름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류의 앤솔로지는 독자들로부터 의외의 반응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목록에까지 진입하고 있다. 이들 앤솔로지는 최근 시집출판계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무명시인의 '대중시'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작권문제와 아울러 그 편집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낸다는 앤솔로지의 특성상 편자의 의도가 뚜렷히 부각돼 독자에게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가운데 그 주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앤솔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앤솔로지를 무작위 시모음이나 단순한 감상용 시집 정

도로 치부하는 일부 출판사와 독자들의 인식은 '선집'이라는 앤솔로지 고유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앤솔로지 출판경험이 많은 문학계사 편집장 김두래씨는 "사실 그동안 출판사측에서는 앤솔로지를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전략상품으로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확보된 독자층을 기반으로 좀 더 다양한 주제의 성의있는 앤솔로지를 개발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앤솔로지의 고전적 형태인 '사랑의 명시 모음'에서 최근에 등장한 '무명시 모음'에 이르기까지 이들 앤솔로지는 출판계의 소리없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앤솔로지 출판에 있어 현재 표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저작권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내용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중시와 순수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즈음의 무명시와 대중시에 너무 민감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내용의 앤솔로지가 아쉽다"는 한시인의 말은 이즈음의 시집출판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 정소연 기자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 ◆ 제작 대행 : ① 일손이 딸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② 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 → 인화 → 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 원고 은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

